

노형욱 장관 ‘안전·안심 하늘길 위한 공항 방역에 총력

- 22일 김포공항 찾아 전국 14개 공항 방역실태 화상점검·방역 만전 강조 -

-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2일 K-공항방역의 최전선인 김포공항을 방문하여, 김포·김해·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의 방역 실태를 온라인(화상)으로 점검하고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방역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
- 먼저, 노 장관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전국 14개 공항의 강화된 공항 분야의 방역 대책을 보고받은 뒤,
 - “코로나-19로 인하여 국제선의 여객 수는 급격히 감소한 반면 국내선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,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항공기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확산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”,
 - “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강력하고 철저한 방역에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, 총력 대응해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
- 이어, 노 장관은 비대면·비접촉 환경 구현을 위한 셀프체크인, 바이오게이트, 수하물 살균장치 등 방역현장을 꼼꼼히 둘러본 뒤,
 - “지난해 10월 김포공항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에 김해·제주·청주·대구 등 4개 공항이 ACI(국제항공협회)로부터 안전한 공항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보건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”면서,
 -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항 방역 시스템을 기반으로 강화된 방역 대책이 현장에서 문제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, 모든 관계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근무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- 한편, “폭염으로 인하여 공항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라며, 옥외 작업자 분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- 아울러, “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 하늘길을 위한 공항 방역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”라고 밝혔다.

2021. 7. 22.

국토교통부 대변인